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Internet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Stress

정구철*, 이상학**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Sang-Hak Lee(somcom@nate.co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년제 대학생 100명과 4년제 대학생 102명으로 총 20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7세(SD=2.7)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간접효과 유의성은 بوت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애착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취업불안만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의 애착을 지각할 경우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감소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인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부모와의 애착이 부적절한 환경에서는 인터넷에 몰두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애착 | 인터넷 중독 | 취업스트레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stres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A total of 202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through SPSS Macro and bootstrapping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parent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job-seeking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Second, job-seeking stress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hird, job-seeking anxiety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pare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herefore, if students perceive a sense of attachment from parents, decrease the chances of internet addiction. When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ccurs, and if they don't feel attachment from their parent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chances of internet addiction. In addition, this impli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 keyword : | Attachment | Internet Addiction | Job-seeking Stress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2014년 8월 29일)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음.

접수일자 : 2016년 02월 15일

수정일자 : 2016년 04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4월 12일

교신저자 : 이상학, e-mail : somcom@nate.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교 공부나 직장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25.4%에 이르고, 수면 부족과 시력저하, 건강악화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42.3%에 달하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1].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4,008만 명으로 2003년 2,922만 명에서 10년 만에 약 1천만 명이 늘어났고, 이용률은 65.5%에서 82.1%로 급증하였다[2]. 그러나 인터넷 중독의 치료를 위해 양성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는 6백여 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을 받은 사람도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1만8천 명 수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도 2006년 이후 약 30만 명 정도로 나타나 다양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과 확산이 부족한 실정이다[1][2]. 특히 2012년 결과와 비교할 경우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전년대비 1.8% 상승폭으로 가장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2].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고,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낮은 애착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인터넷 중독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가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고[5],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가정으로부터 속박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었다[6]. 이와 같이 부모와 적절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 서로 논의하지 못하고 인터넷의 과다사용과 같은 부적

절한 대체 행위에 몰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와의 신뢰나 의사소통의 질, 부모로부터 지각된 소외감 같은 정서로 구성된 부모애착은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응답비율이 2008년 46.1%에서 2010년 65.2%, 2012년 69.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받는 주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고민이라고 응답한 초·중·고등학생들이 10% 안팎인데 반해 대학생의 경우에는 2010년 21.8%, 2012년 23.5%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7].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제, 장애, 가치관 및 친구관계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인터넷 중독과 .16~.38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의외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8].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을 3%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의 예측변수로서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31].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이 보고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직업문제로 고민이라는 응답이 50%를 상회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 문제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 경제침체에서 비롯된 취업을 감소, 노동인력의 양적인 증가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9].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10].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의 경우 회피 중심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진로 결정 수준 또한 낮게 나타났다[11].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의 한 방편으로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간의 경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음주문제에 미

치는 영향보다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9].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회피적 대처행동을 불러와 인터넷 중독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을 더욱 잘 설명하는 예측변수일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지지자는 부모이며[12], 부모는 또래집단보다 장기적인 진로 선택에 더욱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이다[1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 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14],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몰입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15]. 또한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 중 신뢰성과 친밀감이 진로정체감의 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16],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17], 부모애착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애착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으며[18],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등 성인애착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19], 부모애착은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에 대한 신뢰, 적절한 의사소통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고[20], 적절한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제공하며, 부모와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이나 불신,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 부모에게 진로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취업스트레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 인터넷을 찾게 되고, 인터넷은 그들을 편안하게 스트레스부터 도피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21],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업에 대해 대학생이 느끼는 두려움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수였으며[22], 대학생들의

취업과 구직활동에 대한 회피적 대처로 인터넷 중독이 나타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취업난과 경기 악화로 인해 최근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취업에 대한 압력, 구직 준비 필요성 등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다[23]. 이러한 스트레스는 알코올, 마약 등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사이버 중독, 쇼핑 중독 등과 같은 행위 중독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24], 지각된 부모-자녀 간의 애착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회피적 대처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과 2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평균 연령은 21.7세(SD=2.7)였으며, 남학생은 49명(24.3%), 여학생은 153명(75.7%)이었다. 4년제는 102명(50.5%), 2년제는 100명(49.5%)이었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6명(22.8%),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4명(56.4%), 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42명(20.8%)이었다. 성적은 4.0이상은 33명(16.3%), 3.0~4.0은 113명(55.9%), 3.0미만은 56명(27.7%)이었다. 대학적응에 부적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명(11.4%), 보통은 56명(27.7%), 적

응 123명(60.9%)이었다.

설문 조사 시 응답결과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알려주었고, 응답 중 언제든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0분 내외였으며, 설문지 응답 후에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 연구 도구

2.1 부모애착

부모로부터 지각된 애착의 측정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 (Inventory Parents Peer Attachment-Revision: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0][25]. 구성타당도 검증의 과정에서 한국판의 하위요인 구조와 원판의 하위요인 구조가 불일치하였고, 하위요인에 부하되는 문항의 요인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문항도 발생하였으며, 번역에 의한 역문항의 선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총점만을 사용하여 부모애착을 측정하였다. 부모애착의 측정은 부모별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부와 모의 애착을 합산하여 부모애착 총점으로 활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며, 측정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부 부적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총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버지 애착척도 .89, 어머니 애착척도 .87이었고[29], 한국판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아버지 애착척도 .93, 어머니 애착척도 .92였으며[20], 본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척도는 .92, 어머니 애착척도는 .91이었다.

2.2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orean version of the Internet addiction self-scale

short form for Adult: KS-A)를 사용하였다[26]. KS-A는 총 15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측정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원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이었으며[26],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 취업스트레스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의 측정은 코넬대학에서 개발된 Cornell Medical Index(CMI) 72문항을 바탕으로, 강유리가 22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7]. 취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은 성격, 가족, 학업, 학교환경, 취업불안 스트레스로 구성된다. 도구의 측정은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 계수만 보고하였는데, 모두 .78이상으로 나타났고[27],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로 조사되었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연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수행한 후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영향과 매개효과 분석은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28],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모애착과 취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주요 연구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첨도(-.81~.31)와 왜도(-.27~.92)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변수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2

표 1. 부모애착, 취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행렬과 평균 및 표준편차

(N=202)

변인	(1)	(1-1)	(1-2)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1)부모애착														
(1-1)부 애착	.95***													
(1-2)모 애착	.93***	.76***												
(2)취업스트레스	-.53***	-.47***	-.52***											
(2-1)성격	-.45***	-.39***	-.45***	.87***										
(2-2)가족환경	-.47***	-.44***	-.44***	.83***	.63***									
(2-3)학업	-.42***	-.39***	-.40***	.84***	.65***	.62***								
(2-4)학교환경	-.36***	-.32***	-.36***	.74***	.47***	.48***	.62***							
(2-5)취업불안	-.46***	-.37***	-.49***	.81***	.77***	.60***	.54***	.50***						
(3)인터넷 중독	-.35***	-.31***	-.36***	.48***	.39***	.37***	.38***	.37***	.50***					
(3-1)일상생활장애	-.34***	-.30***	-.33***	.42***	.35***	.31***	.37***	.33***	.41***	.87***				
(3-2)가상세계지향성	-.28***	-.22**	-.32***	.44***	.37***	.32***	.36***	.35***	.42***	.76***	.56***			
(3-3)금단	-.32***	-.26***	-.35***	.50***	.42***	.40***	.36***	.38***	.55***	.85***	.61***	.66***		
(3-4)내성	-.24**	-.23**	-.21**	.27***	.20**	.23**	.21**	.19**	.31***	.84***	.66***	.51***	.56***	
M	177.99	87.18	90.81	53.21	14.87	12.12	10.13	10.02	6.06	30.04	10.23	3.50	7.39	8.92
(SD)	(26.76)	(14.99)	(13.52)	(16.49)	(4.88)	(4.66)	(3.74)	(3.94)	(2.88)	(7.34)	(2.61)	(1.29)	(2.37)	(2.47)

*p<.05, **p<.01, ***p<.001

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부모애착과 취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1], 부모애착은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53, p<.001$), 인터넷 중독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5, p<.001$).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8,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 성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2.95, n.s.$), 인터넷 중독 점수는 남자가 더 유의하게 높았다($F=5.22, p<.05$). 경제수준별로는 취업스트레스($F=2.13, n.s.$)와 인터넷 중독($F=.34, n.s.$)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적별로는 4.0이상과 3.0~4.0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3.0미만 집단보다 유의하게 취업스트레스가 낮았고($F=6.47, p<.01$), 인터넷 중독에서는 3.0미만 집단보다 3.0~4.0미만 집단이 유의하게 낮았다($F=4.83, p<.01$). 학교적응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부적응, 보통, 적응 집단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39.74, p<.001$), 인터넷 중독은 부적응 집단이 보통과 적응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0.92, p<.001$).

연령과 취업스트레스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었고($r=.17, p<.05$), 연령과 인터넷 중독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14, n.s.$).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차이 (N = 202)

변수	취업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M(SD)	F	M(SD)	F
성별				
남성	56.71(16.32)	2.95	32.10(6.91)	5.22*
여성	52.08(16.44)		29.38(7.37)	
경제수준				
상류	48.83(17.37)	2.13	29.30(7.37)	.34
중류	54.40(16.53)		30.36(7.02)	
하류	54.76(14.89)		29.98(8.22)	
성적				
4.0이상 ^a	48.27(15.02)	6.47**	30.30(5.60)	4.83**
3.0~4.0 ^b	51.53(15.95)	(a,b)(c)	28.78(7.69)	(b)(c)
3.0미만 ^c	59.50(16.86)		32.43(7.01)	
학교 적응				
부적응 ^a	75.04(10.51)	39.74***	36.09(6.19)	10.92***
보통 ^b	56.70(15.93)	(a)(b)(c)	30.48(7.82)	(a)(b)(c)
적응 ^c	47.54(13.64)		28.71(6.75)	

주. 괄호 안의 알파벳은 Scheffé의 사후검정 결과임.

*p<.05, **p<.01, ***p<.001

3.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취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의 검증은 Preacher와 Hayes의 Macro를 이용해 분석하였다[28]. 연구변수에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성적, 학교적

응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 I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표 3], 부모애착은 매개변수인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23, p<.001), 인터넷 중독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07, p<.001).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B=-.03, n.s.), 취업스트레스가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량은 25.6%로 유의하게 나타났고(R²=.256, F=11.20, p<.001),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3.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 = 202)

모형	단계	경로	B	SE	t
I	1	부모애착 → 취업스트레스	-.23	.04	-6.29***
		부모애착 → 인터넷 중독	-.07	.02	-3.66***
	3	취업스트레스 → 인터넷 중독	.16	.04	4.49***
		부모애착 → 인터넷 중독	-.03	.02	-1.66
	R ² = .256, Adj. R ² = .234, F = 11.20***				
II	1	성격 →	-.06	.01	-4.74***
		가족환경 →	-.07	.01	-5.66***
		부모애착 → 학업	-.04	.01	-4.17***
		→ 학교환경	-.04	.01	-3.64***
		→ 취업불안	-.03	.01	-4.96***
	2	부모애착 → 인터넷 중독	-.07	.02	-3.61***
	3	성격 →	.15	.16	.92
		가족환경 →	.05	.14	.38
		학업 →	.16	.19	.80
		학교환경 → 인터넷 중독	.18	.15	1.15
		취업불안 →	1.00	.27	3.77***
		부모애착 →	-.03	.02	-1.48
	R ² = .291, Adj. R ² = .254, F = 7.81***				

주. 각 모형에서 성별, 연령, 성적, 학교적응수준을 통제한 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임.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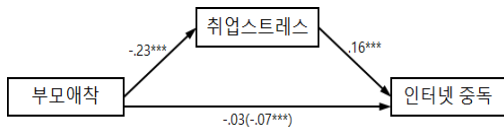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로도

모형II에서는 부모애착이 취업스트레스의 어떤 하위

요인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분석결과 부모애착은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취업불안 요인만 유의하게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0, p<.001). 모형II의 설명량은 29.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R²=.291, F=7.81, p<.001),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에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B=-.03, n.s.),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취업불안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95% Confident Interval: 95% CI)을 분석한 결과[표 4], 모형 I에서 부모애착이 취업스트레스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고(95% CI: -.06~-0.02), 모형II에서 부모애착이 취업불안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95% CI: -.06~-0.02).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분석 결과

모형	경로	Bootstrap 95% CI	
		하한값	상한값
I	부모애착 → 취업스트레스 → 인터넷 중독	-.06	-.02
II	부모애착 → 취업불안 → 인터넷 중독	-.06	-.02

V. 논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한다.

첫째, 부모애착은 취업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터넷 중독의 위험군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29],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의 부족으로 겪게 되는 외로움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대학

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30]. 또한 인터넷의 사용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21][29]는 부모애착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인터넷을 통해 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독의 위험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애착은 취업스트레스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인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적절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애착이 진로결정이나 진로결정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13-17], 결국 가중된 취업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스스로 많은 결정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취업과 같이 생애에 처음 부딪히는 중요한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지지받고 논의할 수 없다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같은 회피적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을 23.0%나 설명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하였고, 설명량이 3%에 불과하였고[31],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설명량이 5%정도로 낮게 나타났었다[3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인터넷 중독의 강력한 예측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불경기와 청년 실업률을 고려할 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취업스트레스는 상당히 위험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감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일자리의 부족도 큰 원인이지만, 적절한 구직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과 추진력의 결여도 한 원인이 된다. 각 대학의 최근 교육부를 통

한 일련의 대학구조조정 평가로 인해 취업률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교육과 상담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비교과 과정이어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현실에서도 구직활동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구직포기와 같은 무기력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고, 적극적인 구직강화 훈련의 참여를 독려하는 선배, 지도교수, 가족의 지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크나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관계의 형성과 언제나 부모와 상의할 수 있는 긍정적 가족관계의 형성은 회피적 대처보다는 문제중심적인 대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부모의 지지적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부모애착은 취업 스트레스의 모든 부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취업불안만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과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불안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을 부분매개 하였고,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0]. 청소년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대화 및 정보 교환, 경쟁욕구 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사회화와 가족 및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33]. 즉, 부모애착의 결핍은 소통과 같은 가족집단의 역할을 부실하게 하고, 불경기와 취업난에 처해있는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취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구직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위치이지만, 대학생들의 취업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이 결핍된 경우 이러한 가족지지의 축이 없으므로 불안을 낮추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고, 이러한 결과가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모든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을 취업스트레스의 다양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4년제와 2년제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등,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부모애착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밝히고 보호요인을 찾을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인터넷 중독은 아직 비물질관련 중독으로 완전히 분류되지 않고, DSM-5에서 고려중인 개념이므로 중독과 관련하여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낮은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부모애착 관계와의 중요성과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10956>에서 인출, 2015.
-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2013.
- [3]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3호, pp.521-535, 2011.
- [4] 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1호, pp.91-106, 2013.
- [5]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 [6] K. S. Young, “Cyber-Disorders: the Mental Concern for the New Millenium,”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3, No.5, pp.475-479, 1999.
- [7]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 2013, 2013.
- [8] 남진열,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pp.121-140, 2009.
- [9] 조민재,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 불안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제5권, 제2호, pp.47-60, 2010.
- [10] 장수미, 경수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4호, pp.518-546, 2013.
- [11] 박선희, 박현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6권, 제1호, pp.67-81, 2009.
- [12] R. J. Burk, J. M. Bristol, and M. G. Rothstein, “The role of interpersonal networks in women’s and men’s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8, pp.39-50, 1995.
- [13] 이상희,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 연구, 제13권, 제3호, pp.1461-1679, 2012.
- [14] 김희수, 문승태,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pp.183-195, 2011.
- [15] 민지애, 유금란,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1호, pp.45-63, 2015.
- [16] 이현주,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41-59, 2010.
- [17] 임수진, “부모애착과 심리적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2권, 제3호, pp.349-363, 2015.
- [18] 황미진, 김보라,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분화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69-280, 2009.

[19] 전혜옥,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성인애착, 자기 표현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7호, pp.312-323, 2014.

[20] 옥정,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1] 권정혜,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270-271, 2000.

[22] C. Frangos and K. Fragkos, “Psychologic predictors and epidemiology of internet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 in Greece,” *European Psychiatry*, Vol.26, No.1, pp.1-40, 2011.

[23] R. Shannon, N. Bradley, and M. Teresa, “Sources of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Vol.33, Sup.2, pp.312-317, 1999.

[24] P. Semaille, “The new types of addiction,” *Revue Medicale de Bruxelles*, Vol.30, pp.335-357, 2009.

[25] G. Armsden and M.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pp.427-454, 1987.

[26]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27] 강유리,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8] I. J. Preacher and A. F.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0, pp.879-891, 2008.

[29] K. S. Young,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arted for recovery*, NY: John Wiley & Sons,

Inc, 1998.

[30] 황혜리, 류수정,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 외로움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6권, pp.321-348, 2008.

[31] 서승연, 이영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pp.391-405, 2007.

[32] 김영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 pp.127-156, 2013.

[33] M. Griffiths,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The Psychologist*, Vol.12, No.5, pp.246-250, 1999.

저 자 소 개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건강심리

이 상 학(Sang-Hak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사)
- 2016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문학 석사)
- 2016년 2월 ~ 현재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이동쉼터 상담원

<관심분야> : 청소년 상담, 건강심리